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9호 【무제 제25578호】 주제 106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시군중대회 진행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남포시군중대회가 9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기》주요로 대회들은 시작되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데 이어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봉,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독창정년전향 지체인 전학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대동군 농업노동자 관리위원장 최옥실,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숙원농업대학 학장 정영길의 결의토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시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평안북도군중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위원장 김승오동지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데 이어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정경일,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안북도간석지건설총합기업소 지체인 최영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의발적으로, 반발적으로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남포시당위원회 위원장 장정환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대회장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 신장감을 떨쳐내 함께 모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쳐갈 각계각층 근로자들의 혁명적신념과 열정으로 세계가 끓어번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려양상이 대회장들에 정경히 모셔져 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자!》, 《당 제7차대회 결집관철》, 《만리마속도창조》를 비롯한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남포시에서

당의 호소에 실천으로 화답해 나섰다

각지 근로단체 조직들과 동맹원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전력생산에서 전력혁신

강원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대진, 총돌격전에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대항하여 인군하였다.

태양절전으로 려명거리건설을 완공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사회주의강국의 존엄 누리에 떨치리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신화적이라는 표현밖에는 더 다른 적절한 어휘를 고출 수 없다.

려명거리, 땅에서 솟은듯, 하늘에서 내려온듯 70층, 65층, 40층을 비롯한 초고층, 고층빌딩들이 작양작양으로 들어섰다. 울릉 하나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거리의 면적도 그러하지만 완공의 시각을 앞당겨가는 번개같은 속도는 그야말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낸다.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지대를 웅장하게 드러낸 려명거리이다.

현대건축의 최첨단기술들이 수많은 도입된 에너지를 절약하며, 특색있는 려명거리의 면모는 또 얼마나 화려한 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려명거리를 훌륭히 건설하여 그 어느때보다 막강한 건설속도를 찍을 (제)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계속 승승장구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엄밀한 건설이 마감단계에 돌어선 려명거리건설을 돌아보고나서 우리 나라 주재 어느 나라의 특명전권사는 려명거리건설을 조선의 놀라운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한달음에 단리를 달리는 질풍같은 속도로 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스려 강산이 변모되는 우리 조국 땅에서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 건설장이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는 곳이다.

오랫동안 저물까지도 거머쥐고 서 보였다고 하였는바, 정성이 온전한 인간이라면 거처에서 추구한 외로운 려명거리를 보고 놀랐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눈부신 건축물은 보일 수 있어도 그 기적을 알아볼 힘

의 원천에 대하여 이해할 능력이 과연 있었는지.

려명거리는 핵무산폐쇄위협들의 현명한 명도를 따르는 길에서 형성되고 날이 갈수록 붐비고있는 주제조선의 분배, 선군조선의 기상, 사회주의강국의 존엄의 자랑스러울 움직이는 체이다.

려명거리건설장은 세상에 다시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려는 선민군민의 도고한 자존심, 건인불발의 자강력, 완강한 창조력이 활화산의 용암처럼 분출하는 뜻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내달리는 비찬 시대의 승결과 박동이 차넘치는 이곳에서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된 지난해 3월을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욕은 뜨겁다.

사상 최대의 국악한 제재와 봉쇄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사면팔방에서 우리의 생존공간을 압박하려고 다투던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꿈과 비상이 활짝 펼쳐나갈 때 세계건설을 선포하시면서 려명거리가 건설되면 우리의 교육자, 과학자, 인민들에게 보편한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거리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될것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사회주의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선언하신 려명거리건설은 핵탄을 머뜨던것보다 더 큰 비상이었다.

이 나라에서나 새 거리를 건설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려명거리는 단순히 새로 일떠세우는 거리가 아니라기때문이었다.

려명거리, 이는 우리의 첫 수조탄 시험과 위성발사를 겹고들려 지발발광하는 원수들의 정수리를 내리친 지역자강의 열의였다. 적들이 발악할수록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높고 우렁차게 울려 퍼져가 하려는 위대한 핵무명장의 드림없는 신념이 고지였다.

려명거리건설의 선포로 세계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분배를 보았고 그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고백없이 보던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느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집으로 일떠서는 70층초고층빌딩의 활공사를 70여일만에!

인류건축의 발전력을 거슬러오르는 이 때까지 지상에서 이런 초고층빌딩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몇몇 차례 일떠세웠다는 실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70층초고층빌딩만이 아닌 려명거리건설장의 그 어느 건축물도 거대한 힘을 보여주고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름에 걸사관으로 최담하여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건설을 완공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되자 원수들은 역사상 최악의 제재와 봉쇄를 이룬 극한상황에서는 실례할수밖에 없다고 격려했다. 적들은 조선의 존엄, 우리 인민의 자강력에 대하여 놀라도 너무 모르고있다. 뜻하지 않은 자연의 태풍을 가시기 위한 합복도 북부비해부구원투가 개시되었을 때 원수들은 려명거리건설에서 시간적 힘을 소비했다기때문에 이 전

후에서의 성과는 기대할수 없다고 뇌까렸다. 내 조국의 북변땅에 전회복의 승리의 기쁨이 나뉘고 또다시 려명거리건설이 전개되자 이번에는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조선이 많은 불적자원을 소비했다기때문에 려명거리건설은 지연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망발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인민의 애국적정신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편이 승리하고있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으로 믿고 여기고있다.

려명거리건설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름에 일심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광활로운 앞날에 대한 확신, 불같은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끓여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넓혀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혁사의 진리가 증명되는 곳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박에서도 더욱 억세어지고 세계를 향해 파강히 돌진하는 핵무산폐쇄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 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할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 거리의 건설을 맡기하시고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위대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제재와 봉쇄의 역사철사를 주체 사상, 선군사상의 철벽로 산산이 짓부셔버리는분, 시련과 난란의 역장구름을 애국애민의 장검으로 쳐 갈라버리고 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조선을 세계가

우러리보게 우뚝 울려서우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우리는 원수님 아니시였다면 과연 그 누가 원수들이 미친듯이 끌어오던 역공에서 조선의 존엄과 분배를 만원하여 시위하며 려명거리건설을 단호히 선포할수 있었는가.

정녕 핵무산폐쇄와 같이 드높지 않는 배수의 그 담력과 배짱이 결연 려명거리건설이다.

지난 1월 려명거리건설장장을 찾아오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

이것이 조선의 지난해 3월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된 그날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양에서 영세를 다지신 풍남산을 이우도록 바라보시지 않았는가.

태양의 성지와 이어질 이 거리의 해돋는 풍남산에서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혁명의 앞날을 상징하는 《려명거리》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의 지혈한 대적전이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

수호전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인민 그 시각 건설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은 여찌하여 불타이처럼 달아올랐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정성이 어떤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방위에 인민의 사상과 꿈을 빛나는 현실로 불피우실 일념 밑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를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건설하도록 이끄시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에 동원된 전체 일꾼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이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최후돌격전에 떨쳐나 마지막결승주로를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전까지 무조건 끝내자는것을.

그 어떤 힘으로도 당중앙이 가버리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의전진을 걸 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핵무명장의 결연과 의지가 천만의 심장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한마음으로 높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우리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정신력은 더욱더 용감하고도 단호하게 떨쳐나오게 되었다.

려명거리건설지역은 당중앙의 권위를 걸사관위하는 사생결단의 격전장,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충돌성능은 전구,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

적들이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우리의 앞길, 목숨바쳐 지켜야 할 우리의 존엄, 전진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고 비굴수 없는 데없이 귀중한것이다.

갑그대로 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려명거리건설에는 걸사관위, 걸사관위의 정신과 기상이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다.

불꽃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모퉁이같은 엄두도 내수 없는 공사과제를 려명거리건설장의 우리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기어이 해낼것을 맹약하였다.

레베주의자들과 원수들의 가로로 온 땅밭을 후련하게, 황폐하게 짓부셔 건설의 신화를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고동치는 심장들의 열기.

그 불같은 열기는 려명거리건설을 뜻깊은 태양절까지 혁명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백배로 걸사관위하려는 불굴의 정신력과 걸사의 의지로 이어져 우리 당의 결심은 곧 승리라는것을 실현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뜨거운 심장으로 받들고 당과 수령의 권위,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생명이 다 키우며 어렵게 오는 걸사관위, 걸사관위의 투사들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려명거리건설에서 기어이 영웅신화를 창조할것이다.

뜻깊은 태양절에 장대하게 미쳐 오르게 될 려명거리완공의 승전포성은 우리 당의 결심은 절대적전임이고 파하여라는것을 다시한번 믿 있게 선언하며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려명거리건설자들아!

태양에 떴세라던 태양절까지는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최후돌격전의 마지막결승주로를 북돋아주라!

본사기자 한영민

완공을 앞둔 려명거리에서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인민을 위해 열사부무하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라는것을 온 세상에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충돌성능은 전면대결전에서의 패승으로 걸 우리의 려명거리.

승리를 믿는 정신력의 강자들만이 치열한 격전장에서 나무를 심을수 있다. 승리에 대한 기쁨, 행운한 레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찌 나무를 심을수 있겠는가.

그렇다. 려명거리에 이어지는 저나라나나 나무들은 이 나라 인민이 려명거리완공이라는 고지구에 꽃이 가는 승리의 기념물이다.

저 나무들이 자라 푸르며 살게될 려명거리의 레일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할것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봉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조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신념은 생명이며 이런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지닌 사람에게는 오직 가능성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온갖 원수들의 악랄한 도전을 불피우며 혁사의 존엄한 복판을 뚫고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신념이 없으면 시련과 난란앞에서 용무하게 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투철한 신념은 자기 평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언에 기초하고있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청년발원소 군인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걸사의 각오를 굳히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인영거로 이어 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미상한

공사에 필요한 살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민시대의 분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로 높이 내세워주신 강원도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열의, 강국열의를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총정의 마음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맞받아나가는 동격정신으로 눈부신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장소들과 강철, 세멘트, 인공관대 생산기지를 비롯한 자력갱생기지를 세우는 당시 감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사상을 베풀어준 새진 강원도인민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맥박치고있다.

원수의 신념과 의지야말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무어든 유를 창조할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지금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인영거로 이어 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미상한

기다린다.

당이 준 과업이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땅에서 정배는 시간에 최상의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끝내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지역자강의 위력으로 원수들의 국악한 반공과국악살해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건설자들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하고자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단란한 투지와 걸사의 각오를 가지고 최후돌격전에 산악이 펼쳐지거나 마지막결승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이야말로 우리 혁명가들이 영원한 파우명으로 삼고 실천투쟁에 구현해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며 전무적기치이다.

조 학 철



결사옹위하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자

마지막 결승주로를 따라 돌격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비영토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호르는 분분초초가 되는데 만리마시대정상으로 맹목적이고 사회주의조국준엄사수의 불길, 지역자강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떠오르는 여기 혁명전력!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이 그대로 거적이다.

우리는 지금 대지를 밟고 하늘가로 치솟는 인공지구위성을 방비해 하는 70층살림집을 마무리하고있다.

지난해 74일만에 팔조공사원공의 초성이 장엄히 울려 퍼져 온 나라를 격동시켰던 이곳 초고층살림집건설장에서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창조되고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70층살림집의 외벽들을 꼭 재우다싶이 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인민복무전》, 《지력자강》, 《만리마속도》, 《대비약》, 《대혁신》, 《결승의 밤》의 밤...

단순한 굴뚝이 아니다. 바로 그 표류가 제시되어있는 작업방안에서 우리의 미려한 군인건설자들은 격렬한 외벽타일붙이기전투를 벌이고있다.

사나운 겨울이 좀처럼 물러가려 하지 않고 쌀쌀한 날씨가 의연 계속되고있지만 군인건설자들에게는 계절이 따로 없다.

조선인민군 유성철소속부대와 오정철소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전투에 전입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작업은 벌써 50% 이상에 들어가고있다.

어느 발판이나 지휘판들이 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다른 애를 들이대는 그들의 이신작적은 말없이 울리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이다. 말판은 크지 않아도 지휘판과 병사들은 자기들이 위치한 곳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처럼 여기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야만적인 《초강경제》에 대항하는 원수들의 대항통에 비수처럼 막는 심정으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타일들을 한장도 한장 놓아가지고있다.

높이가 2백 수미터를 헤아리는 70층살림집의 외벽타일붙이기에는 모퉁이, 고층, 초고층살림집의 외벽타일붙이기와 대비조차 할수 없이 반대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타일을 붙여야 할 면적은 측량기장을 3-4개 합친것보다 더 크고 수많은 작업타일들을 움직이기 위해 높은 바늘은 10여m나 된다. 작업에 필요한 각종 풍동은만에 피로되고있는 대형발전기가 40대를 돌리는다는 사실도 그 반대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수 있게 하는 세부이다.

하지만 우리의 군인건설자들

70층살림집 건설장의 벽찬 숨결을 전하며

이제는 수직, 수백년도 더 부른 노래이지만 부대에출신전대원들은 혁명전력이 불변하게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있다. 여러명의 소년대를 무어 돌돌한 현장마다에 달려가 노래도 부르고 일도 할 줄 알고있다.

《노래소리에 매일, 매 시각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더 큰 힘을 얻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치리, 번개처럼 질풍처럼 날아오는 우리 병사들의 앞길은 그 누가 가로막을수 있랴.》

그렇다. 혁명거리건설, 그것은 몸이 철조

벽찬 숨결을 전하며

각, 만조각 난대도 수평의 원위, 당의 원위를 보위하여야 할 수평결사옹위전, 당정착을위하며 전이며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사회주의의 주체가외와 같은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조국준엄사수전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전회의 나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울려져서

벽찬 숨결을 전하며

원칙의 전사기요인 《조국보위의 노래》를 오늘도 힘차게 부르며 최후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 땅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내뿜는 사회주의의 주체가외와 같은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조국준엄사수전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전회의 나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울려져서

다에서 완공의 초성이 울릴 그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는 혁명적군인정신, 만리마시대정신이 세월을 주름잡으며 남에남마다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는 이곳에서 우리의 병사들이 마음속으로 머치는 격동의 체험을 듣는다.

용감하라 병사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꽃길은 태양길을 향해, 완공의 그날을 향해 만리마여 더 빨리 앞으로!

글 본사기자 김충성
사진 본사기자 함광명
본사기자 리충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천년책임, 만년보충!
자기들이 일떠세우는 지역자강의 창조물들과 더불어 당과 조국, 인민앞에 순간순간 다지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애국의 선서와도 같은 이 글들은 비단 혁명전력의 살림집과 풍문전복제마시대의 산 빛나고있는것이 아니다.

70층살림집과 쌍기둥을 이루어 나란히 일떠세운 55층살림집지하에는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장병들이 건설한 규모가 대단히 큰 차도가 있다.

많은 차들이 자유로이 오갈수 있고 여러개소에서 주차도 할수 있게 꾸러진 이곳에 들어서면 마치도 땅속이 아니라 땅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천장을 떠받치고있는 수직계의 기둥들이 울퉁이 나는 매끈한 바닥과 조형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벽에도 산뜻한 색깔의 칠감으로 단정되어있어 지하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저도모르게 사라져버린다.

지하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봉사장들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불자들을 이곳을 통해 보충하고 주차까지 할수 있도록 투철하게 설계된 차도를 돌아볼수록 남로 발전하는 우리 건축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이 뚫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후덕히 해주는것은 땅이 인제

벽에서부터 물, 바닥에서도 물, 커다란 커다란 물이 없는 물과도 격정이었다.

가물막이, 수벽막전건설장에서는 타일붙이기는 말이 드물게 지하차도건설장에서 울려나왔다.

중기계들도 들어설수 없어 부대군인건설자들은 인력으로 타일과 콘크리트 운반하고 방수벽을

온 나라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기숙사물 최상급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각 도를격려원들과 한전호에 선심심으로 합정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마시대를 비롯한 각도, 시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이 건설에 필요한 많은 기공구들과 로동보호용차, 식료품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배의 일같이 전투현장으로 달려오고있다.

지난 시기 10여차례에 걸쳐 혁명거리건설을 지원한 창정해맞이식당의 총영원들이 수평지대를 새로운 위문장조로 적극 고루추진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달려서 대담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대대고 실천으로 대담하는것이 애국자답인 자세입니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최후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투현장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정치사업도 진행하는 한편 마감공사에 걸림이 없도록 각종 기계설비와 용건기재, 마감전제, 로동보호용차 등 많은 불자들을 보내주었다.

평양은 우리의 향심을 보증하며!

본사기자
주제 과학교육의 최고전당

에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가정에서 마련한 기공구들과 식료품들을 그들에게 안겨주어 크게 고무해주었다.

대성구역에서 사는 특유영에 군인 박영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면 군사부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여러차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가지고 찾아와 당의 사상관철전에 전력한 건설자들을 위문장조로 고무추진하였다.

대성구역 동흥1동 83인민민에서 일고있는 정은이는 전쟁로병인 할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담아 성의껏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고 군인건설자들을 찾았다.

자기 가정에 들려준 당의 은정을 심장에 새기고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개인신신성에서 사는 김영남은 혁명거리건설에 적으나마 기여할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수차례 걸쳐 건설장을 찾았다.

평양기공성신학교 청년동맹원 군인 전향관과 내각정치국에서 일하는 조영진도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만리마도정도로 불붙는 혁명거리건설장을 찾았다.

정소년학생들도 새로운 건설

속도,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는 혁명거리건설장을 찾아와 자기들의 리유에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지난 시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원을 더 밝고 정중히 꾸리는 사업에 깨끗한 충성을 바쳐온 평원구역 봉남초교 2학년 3반 학생 리광성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과 저녁마다 당의 사상관철전에 전력한 건설자들을 위문장조로 고무추진하였다.

시성구역 장정초급중학교 학생 리정희와 강원도 고산군 광명초학교 학생 한태홍도 비록 당이 성의껏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고 군인건설자들을 찾았다.

사기 가정에 들려준 당의 은정을 심장에 새기고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개인신신성에서 사는 김영남은 혁명거리건설에 적으나마 기여할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수차례 걸쳐 건설장을 찾았다.

평양기공성신학교 청년동맹원 군인 전향관과 내각정치국에서 일하는 조영진도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만리마도정도로 불붙는 혁명거리건설장을 찾았다.

정소년학생들도 새로운 건설

온 나라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기숙사물 최상급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각 도를격려원들과 한전호에 선심심으로 합정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마시대를 비롯한 각도, 시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이 건설에 필요한 많은 기공구들과 로동보호용차, 식료품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배의 일같이 전투현장으로 달려오고있다.

지난 시기 10여차례에 걸쳐 혁명거리건설을 지원한 창정해맞이식당의 총영원들이 수평지대를 새로운 위문장조로 적극 고루추진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달려서 대담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대대고 실천으로 대담하는것이 애국자답인 자세입니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최후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투현장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정치사업도 진행하는 한편 마감공사에 걸림이 없도록 각종 기계설비와 용건기재, 마감전제, 로동보호용차 등 많은 불자들을 보내주었다.

평양은 우리의 향심을 보증하며!

본사기자
주제 과학교육의 최고전당

평양은 우리의 향심을 보증하며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실제도를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아로새겨는 군인들의 위훈의 자욱자욱이다.

시간이 다스려 일떠세우는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봉사전투물들을 바라보며 그속에 숨겨진 건설자들의 피와 땀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듯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격전을 벌인 군인들이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을것이다.

혁명거리완공의 시각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에는 간고했던 투쟁의 흔적을 볼수 없지만 이곳 부대 장병들이 뿌린 것은 헌신의 구슬땀은 지하차도의 곳곳에서 전주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다.

동여겨보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들어선 길이였는가.

좋은 날, 좋은 때보다 어려운 날, 힘든 때 더욱 뜨겁고 열렬하게 뚫어내야 하는것이 애국의 피이다.

어머님에 대한 불라는 충정과 조국에 드리는 깊은 위훈은 온 순간순간을 빛내일줄이 애국자들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으며 그들이 바쳐온 애국의 향심을 력사는 영원히 보증한다.

지금 이 시각도 부대의 장병들은 혁명거리건설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눈이에서 완공하기 위해 자신들과 이렇게 쉬임없이 마음속에서 화를 내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평양은 우리의 향심을 보증하며!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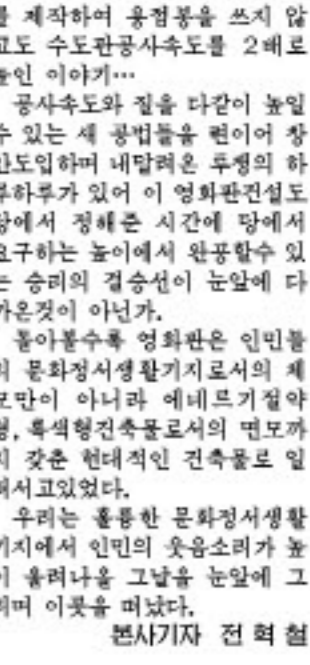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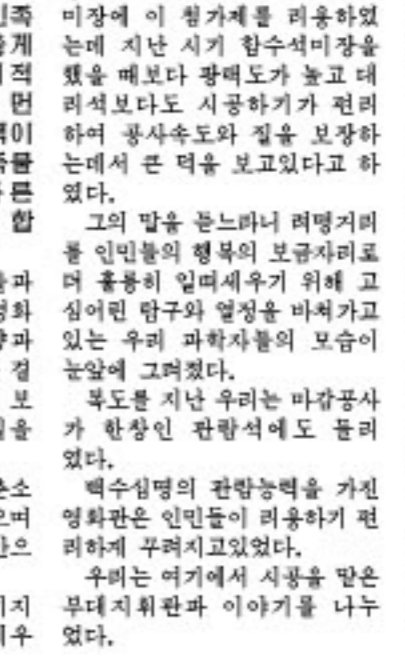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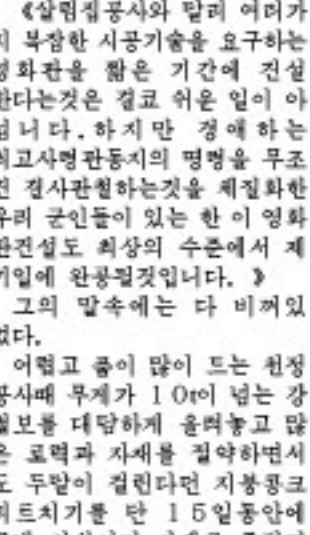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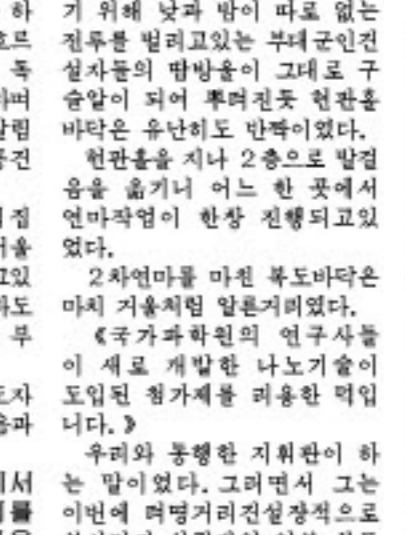
좋은 날, 좋은 때보다 어려운 날, 힘든 때 더욱 뜨겁고 열렬하게 뚫어내야 하는것이 애국의 피이다.

어머님에 대한 불라는 충정과 조국에 드리는 깊은 위훈은 온 순간순간을 빛내일줄이 애국자들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으며 그들이 바쳐온 애국의 향심을 력사는 영원히 보증한다.

지금 이 시각도 부대의 장병들은 혁명거리건설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눈이에서 완공하기 위해 자신들과 이렇게 쉬임없이 마음속에서 화를 내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평양은 우리의 향심을 보증하며!

본사기자



인민들을 기다리는 정서생활기

우리는 조선인민군 김동준소속부대 지휘관의 안내를 받으며 마감공사가 한창인 영화관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있는 부대군인건설자들의 땀방울이 그대로 구슬같이 되어 뿌려진듯 현관문바닥은 유난히도 반짝였다.

현관문을 지나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어느 한 곳에서 언뜻언뜻이 한쌍의 전등이 반짝이고있었다.

2차원마을 마린 부도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일그러져있었다.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이 새로 개발한 나노기술이 도입된 첨가제를 리용한 덕입니다.》

우리와 동행한 지휘관이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이 혁명거리건설장으로서 봉사당과 살림집의 일부 부도미장에 이 첨가제를 리용하였는데 지난 시기 합수석미장을 했을 때보다 광택도가 높고 대리석보다도 시공하기가 편리하여 공사속도와 질을 보장하는 데서 큰 덕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듣는나니 혁명거리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더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고심하던 탐구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부도본 지하 우리는 마감공사가 한창인 관현관을 드물리었다.

텍수심명의 관현관력을 가진 영화관은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꾸려지고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공을 맡은 부대지휘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사기자 전혁현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세계가 우리의 강위적인 핵공격무기인 지상대사상중장기미사일인 **북극성-2**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놓고 지금도 다투고 있다.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가 그처럼 최상의 조건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0%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를 완성한 것은 역사에 유례없는 것이다.

얼음이 빠진 적대세력들에서는 불안과 공포의 아우성이 계속 되쳐나오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놀라움과 찬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방송, 방송물은 비상히 강화된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대하여, 찬탄하는 주제를 기입하고 있는데, 때때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프라우다》가 **프라우다**, 쿠바의 **레벨라** 라디오통신, 이란신문 《이만 데일리》, 베네수엘라 텔레비전 방송 등 조선의 새형의 미사일인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조선의 김정정은 최고명도 자체서 진행된 로씨야 TV방송 등은 조선의 새형의 미사일인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조선의 김정정은 최고명도 자체서 진행된 로씨야 TV방송 등은 조선의 새형의 미사일인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미국잡지 《국가리뷰》는 혹독한 경제제재 속에서 조선의 핵공격능력과 경제는 정상화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미국보트를 타격할 수 있는 로씨야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군사적전력이라는 비현실적이며 오직 외교적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사상중장기미사일인 **북극성-2**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에 있어 최고명도 자체서 진행된 로씨야 TV방송 등 조선의 새형의 미사일인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미국과 기상을 온 세계에 파시한 승전포성이며 우리를 압살하려고 미쳐달려온 미국의 변상을 보기 좋게 후회감만 통쾌한 대승리이다.

세형의 전략무기개발로 우리 혁명무력은 수공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무자비한 핵보복타격으로 천부들을 짓밟아놓을 수 있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은 항시적인 핵타격에 사살되거나 하루한시도 잠잠함을 지시 못하게 되었다.

미국내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보다 강력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종된 두부의 불리후 중간구간과 새물입구간에서의 자체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능력을 증진 시키는 등 중요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로씨야는 대륙간도체로켓개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무력제재라는 겁에 질린 소리가 되쳐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우리의 정리의 핵보복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몰랐다.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았다. 로씨야는 대륙간도체로켓개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무력제재라는 겁에 질린 소리가 되쳐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몰랐다.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았다. 로씨야는 대륙간도체로켓개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무력제재라는 겁에 질린 소리가 되쳐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몰랐다.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았다. 로씨야는 대륙간도체로켓개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무력제재라는 겁에 질린 소리가 되쳐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제재와 봉쇄에 우리를 더는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며 인제인가는 스스로 불타앉았기 때문이라산 하였다. 어리석은 망상이었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았다. 장강수심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았다. 장강수심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았다. 장강수심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았다. 장강수심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았다. 장강수심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았다. 장강수심년동안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경제에 올라섰다. 그 누가 뭐라고 하는 핵정권적력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쟁취하여 놓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 새로운 개발한 우리의 주체관, 주체무기는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눈여겨보는 미국에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지금 미국이 또다시 우리에게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쟁공포와 핵전략공격기를 들이댄다. 그러나 우리의 면전에서 팔기공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은 핵전쟁의 한낱 허세에 불과하다. 그런 상투적인 수법으로 우리를 놀래우고 그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은 언제 가도 실패할 수 없는 꾀이다.

미국은 제재조치를 계속 취하는 미지피질을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면전에서 또다시 위협적인 핵전쟁공포를 강행해나선 이상 우리는 이미 선군전대로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강대국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강대해질 것이며 미국의 최후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반발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배반이다. 그 어떤 억압이 찍어지든 밟아도 해도 한탄 없이 일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절대로 반발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배반이다. 그 어떤 억압이 찍어지든 밟아도 해도 한탄 없이 일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절대로 반발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배반이다. 그 어떤 억압이 찍어지든 밟아도 해도 한탄 없이 일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절대로 반발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배반이다. 그 어떤 억압이 찍어지든 밟아도 해도 한탄 없이 일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

국제사회계각찬

얼마전 벨라루스잡지 《사회코자》 책임주필 세르게이 제비코프가 집필한 **《민주조선의 여성들》**이 발행되어 이 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사물을 비롯한 각계층의 이목을 끌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장 이리나 말레코는 자기의 인상담에서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사회주의제도의 채택에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 넘친 생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들과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간으로서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평범한 여성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아무런 군림당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이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들과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간으로서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평범한 여성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아무런 군림당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이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들과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간으로서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평범한 여성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아무런 군림당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이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들과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간으로서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평범한 여성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아무런 군림당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이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들과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간으로서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평범한 여성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아무런 군림당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이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들과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간으로서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평범한 여성노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아무런 군림당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이다.

조선 미국과 남조선에 초강경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의 거침없는 핵공격과 내외의 강력한 항의의결에 불구하고 이제와 남조선피괴죄행들이 끊임없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탄두 실험공사능력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선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2일과 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프진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미국과 남조선피괴죄를 실행공사능력을 강화해나선 이상 초강경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제와 남조선피괴죄에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걸음의 불꽃이라도

도 날리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대응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의 혁명무력은 항시적인 경계상태에 있다고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적행위를 동조하여 이번 연습에서부터는 추계세력들도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코도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내년》이며 《방어》인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던 의외까지 벗어났고 이번 연습이 조선에 핵전쟁태세를 가하려는 데 있다고 로씨야의 파스프진이 보도하였다.

이 나라 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필리핀시달한는 최근에 알

피를 비롯한 폭발물처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수리아군은 필리핀의 기점으로 하여 여러 전선에서 공세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 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필리핀시달한는 최근에 알

서방의 내정간섭행위 비난

로씨야의 파스프진이 2일 마케도니아에 대한 서방의 내정간섭행위를 비난하였다.

의무성은 최근 서방이 마케도니아에서 소수민족을 추방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한하여 서방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서방은 자기 문제를 민주주의적원칙에 따라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이 나라 국민들의 자주적인 권리를 존중하며 내정간섭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의무성은 강조했다.

미국은 이 나라 군대를 시아만도 중부지역에서 테로분자

들의 소굴을 들이쳐 12명용 살포하였다.

한편 알제리의 동남부지역에서 테로분자들이 비행하던 무기가 격파되어 많은 무기와 탄약이 압수되었으며 마케도니아는 온갖 테로를 입상한 악당조직이 드러나 25명의 범의자가 붙잡혔다.

세계적인 알파카격 인상

세계적으로 2월에 알파카격이 그 전담에 비해 2.5%

미국인 인권보고서》 배경

이란의 무성 대변인이 4일 자국 나라를 걸고든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단호히 배격

하였다. 미국무성이 《내년 인권보고서》라는 데서 이란의 인권상황을 힐문할 것과 관련하여 그는 국제외에서 저지른 인권유린행

위를 하여 한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혼란 자국이 없다고 단격하였다.

그는 그 어떤 국제기구나 범세계적으로도 테로분자

들의 소굴을 들이쳐 12명용 살포하였다.

한편 알제리의 동남부지역에서 테로분자들이 비행하던 무기가 격파되어 많은 무기와 탄약이 압수되었으며 마케도니아는 온갖 테로를 입상한 악당조직이 드러나 25명의 범의자가 붙잡혔다.

세계적인 알파카격 인상

세계적으로 2월에 알파카격이 그 전담에 비해 2.5%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공급발전계획

가나정부가 최근 공급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였다.

계획에 따라 200여개의 대형구조물에서 규모와 공정, 기술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그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 및 재정적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계획이 실현되면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관객들 증가

스리랑카에서 1월에 이 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수가 21만 936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9%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3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하부구조부 7기금

김바르헤에서 최근 여러달 동안 계속 내린 폭우로 파편된 하부구조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1일 이 나라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건설도움을 1개월안으로, 기타 지원도 2배로 늘려 줄 것을 8개월안으로 복구하는데 힘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이 할당되었다고 한다. 코네티컷생산지정전담

인도네시아에서 1.4분기

여러 나라에서 시위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수상의 오스트랄리아정부를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번 시위는 오스트랄리아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의 강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나라에서 시위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수상의 오스트랄리아정부를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번 시위는 오스트랄리아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의 강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나라에서 시위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수상의 오스트랄리아정부를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번 시위는 오스트랄리아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의 강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나라에서 시위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수상의 오스트랄리아정부를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번 시위는 오스트랄리아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의 강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나라에서 시위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수상의 오스트랄리아정부를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중년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번 시위는 오스트랄리아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의 강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받는 미국의 내정간섭행위

미국이 공욕을 지르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와 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이슬람교국가》의 테로분자들에게 현수적인 공물을 가한 수리아군은 필리핀으로 전격하여 도시를 완전히 탈환하였다. 현재 테로분자들이 배설한 지

가 베네수엘라가 그 주되는 파노로 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미국의 근접한 경제제재와 국제시정에서의 원유가격하락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환경에 의하여 베네수엘라의 반정부군들을 무장하고 현 정부의 영상을 흠잡기 위한 비현란 음모실현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헌정법 《비행》을 모략적으로 조작하고 극대화하는 놀음을 끈질기게 벌려주고 있다. 이렇게 놀고 배 베네수엘라부대통령에게 제 체제를 가하는 것도 원칙에 있어서는 국가권위를 위한 내정간섭행위이다.

이런 제재를 두고 격렬한 베네수엘라대통령 마두로는 부대통령과 함께 진행한 텔레비전방송 출연에서 미국이 제재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강력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제세대상에 오는 베네수엘라 부대통령은 《나는 이치릴 과를 치고 나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며

수단들을 이용한다는 《비상용 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비정상적인 시위와 폭력행위들이 범람하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혼란이 조성되면 공화정부가 전복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비상용 전쟁》, 《악화혁명》을 강행한 것이다.

최근 시점에서 볼 때 지난해 수리아대통령이 《미국이 한걸음 한걸음 조성한 것》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즉 만약 미국이 더 큰 혼란을 조성한다면 한다면 과연 그들은 그로부러 초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 아니다.》

제안 사실들은 세계제대망에 환상되어 장군과 전횡, 내정간섭 등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비상용 전쟁》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일삼으며 횡포하게 놀아대다가는 온 세계가 악의 제국을 들을 돌려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걸